“ ‘민족 스승’ 이라며 동상 세울 땐 언제고…”

지자체 책임회피로 공원에 방치된 효창공원 원효 동상

원효대사 탄신 1400년을 맞아 재조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원효대사 동상은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5월 불교계는 서울 효창공원의 원효대사 동상이 무관심 속에 심각한 훼손 상태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문제의 원효대사 동상은 관리주체조차 모호한 상태였다.

건립단체 해체 후 방치

훼손 논란이 일었던 효창공원 원효대사 동상은 1969년 박정희 정부 산하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당시 위원장 김종필)에서 건립했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을 비롯해 유관순 열사 동상, 김유신 동상 등을 만든 이 단체는 70년대 초 해체됐다.

2011년 5월 불교계 언론의 보도 당시 효창공원 원효대사 동상은 녹이 슬고 새들의 분비물로 덮여 있는 등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용산구청과 서울시 측이 서로 관리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회피했고, 그 사이 동상은 흉물스럽게 방치됐다. 불교계 안팎에 “동상을 보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대한항공’ 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나서 5000만원의 보수비를 지원해 세척부터 녹 제거, 도색 및 코팅 등을 진행했다.

지자체 책임 미루기 행태 ‘여전’

그로부터 약 5년 7개월의 세월이 지난 구랍 26일, 다시 찾은 효창공원 원효대사 동상 주변은 비둘기 등의 분비물로 지저분했다. 동상 훼손이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관리 책임이 없다는 두 지자체의 입장은 여전했다.

박정희 정권서 세운 동상
지자체 ‘관리 나몰라’ 무관심
보수 책임공방 6년째 그대로
“2011년 사태 재발 가능” 우려

동상 관리에 대한 잇따른 지적이 나오자 2010년 ‘서울특별시 동상 · 기념비 ·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는 자신들의 책임이 시유지에 국한된다고 발뺌했다. 이 조례에는 서울시 공공용지 내 동상의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연 1회 상태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건립주체 해체 시에는 해당 기관장이 이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효장공원 원효대사 동상은 2011년 방치 논란 끝에 민간기업이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그후 6년여 동안 관리주체조차 없는 상태다. 사진 원 안은 새들의 분비물로 더럽혀진 부분.

서울시 내 동상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관계자는 “이 조례 1조에는 대상의 위치를 ‘서울시 공유재산인 공공용지’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시유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효창공원은 국유지”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용산구청이 현재 효창공원을 관리하고 있어 동상까지 관리하는 것이 맞다. 동상 현황파악 등 실무도 구청 측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운동가 및 민족선열 유해를 안장한 효창공원은 2013년 국립묘지 격상이 논의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근린공원으로 남아 용산구청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용산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동상은 서울시 관할이라고 다시 책임을 떠넘겼다. 이 관계자는 “구청은 공원을 위탁관리할 뿐이고, 민간이 공원에 세운 동상 보존에 대한 책임은 시에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청이 원효 스님 동상 관리에 책정한 지난해 예산은 전무한 상황. 용산구청의 관리는 동상 청소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9월 원효 스님 동상과 같은 조형물을 둔 책임공방이 이어지자 이를 해소하고자 각 구청에 ‘공공조형물 관리 개선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지만, 용산구청을 비롯한 일부 구청은 이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청동 부식, 책임공방 재발 가능성

이 같은 상황에서 청동주조 전문가들은 주조물 특성상 10년 간격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011년에 발생한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종일 천종사 대표는 “2011년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보수의사를 밝혔지만 시와 구청이 서로 책임을 미뤄 무산됐다. 결국 여론이 안 좋아지자 부랴부랴 동상을 수리했다”며 “청동은 잘 관리하면 2~30년 이상 문제가 없지만, 관리가 소홀하면 10년 내로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효창공원 원효 스님 동상 앞에서 매년 다례재를 열고 있는 원효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예산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스님은 “신도들이 매주 청소는 하고 있지만 근본해결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에서 민족의 큰스승이라며 동상을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지자체간 책임문제가 지속되면 새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 예산을 신청하는 등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새해에 만나는 보우국사 명상여행

중흥사, 1~3월 템플스테이

‘역사해설 템플스테이’ ‘숲해설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호평을 받은 고양 중흥사가 새해부터 ‘태고보우국사’를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를 연다.

중흥사(주지 지홍)는 1~3월 첫째 · 넷째 주 토요일에 특별템플스테이 ‘태고보우국사와 함께하는 명상여행’을 실시한다.

태고보우국사(1301~1382)는 1341년부터 1346년까지 중흥사 주지를 역임했다. 이 기간에 현 태고사 자리에 암자(태고암)를 짓고 기거하면서 장편선시 ‘태고암가(太古庵歌)’를 창작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신앙이 아닌 중흥사에 담긴 역사를 주제로 한다. 오전 태고보우국사의 부도와 부도비를 답사하고 거북바위서 좌선을 체험한다. 또 날씨가 추울 경우에는 태고사 답사 대신 중흥사에서 태고보우국사가 쓴 수행에 관한 글과 시 등을 읽으며 국사의 생애를 살펴본다.

태고보우국사 명상여행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 또는 중흥사 홈페이지(www.jh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02)355-4488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진통 끝 ‘사실상 무산’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구랍 28일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 변경안을 부결했다.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으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땐 문화재위원회 허가가 필요하다.

앞서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며 설치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의 이날 결정으로 사업이 어렵게 됐다. 추후 양양군이 사업계획을 전면 보완해 다시 신청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계종 환경위원회 ·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계시민사회단체들은 반색을 표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쪽방도우미회, “춥지만 외롭지 않아요”

本紙 보도 후 도원사 만오 스님
쪽방촌 사연에 1,000만원 후원

송구영신(送舊迎新). 그러나 영등포 쪽방촌을 지키는 자비보살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더욱 무겁다. 쪽방 문 앞마다 연탄을 켜켜이 쌓아두고,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내의 한 벌을 안겨드리고도 시름이 좀처럼 덜어지질 않는다.

하지만 쪽방촌도우미봉사회(이하 쪽방도우미회)의 이번 겨울은 마냥 쓸쓸하지만은 않다. 세상 곳곳서 전해지는 자비의 손길들 때문이다. 한 주 한 주 근근이 봉사하는 이들이 매주 목요일 어김없이 쪽방주민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내는 것을 보면, 한 가닥 광명의 빛줄기가 이들을 보듬는 것이 틀림없다.

2017년 새해를 앞두고 본지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본지가 쪽방도우미회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한 후 후원자들이 나타났다. **〈11월 9일 제1121호 참조〉**


그림 · 강병호

그 중에서도 부산 도원사 주지 만오 스님은 쪽방도우미회에 직접 1,000만원을 후원해 다시 한 번 보시행을 펼쳤다. 만오 스님은 지난해 9월 불교계 국제구호 NGO 지구촌공생회에 2억6,000만원을 후원하고, 굿네이버스에 2억을 기탁해 귀감이 된 바 있다.

박부득 쪽방도우미회 팀장은 “후원품을 마련하느라 발을 동동 굴렀는데 올해는 만오 스님 덕분에 따뜻한 연말을 보냈다”며 “만오 스님의 후원금으로 동지 때 팥죽을 나눠줄 수 있었다. 남은 금액으로는 쪽방 어르신들을 위한 내의를 구입할 것”이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만오 스님은 “쪽방도우미회는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장한 일을 하고 계신다. 힘들더라도 큰 행복 느끼시길 바란다”며 “2017년에는 쪽방 주민들도 더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길이 생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밖에 현물 보시도 이어졌다. 박 팀장은 “현대불교신문 보도 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도 쌀 50포대를, 지방 사찰서도 국수 1박스 등을 보내주셨다. 십시일반 도움들이 엄청난 힘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사)쪽방촌도우미봉사회는 영등포 쪽방촌서 18년 간 매주 목요일마다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 현재 언제 헐릴지 모르는 가건물서 도시락을 만들며 어렵게 자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후원계좌=국민은행 384737-04-004793
예금주=(사)쪽방촌도우미봉사회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국박(國博) 소장 불교조각 보고서 발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최근 2013년부터 실시한 금동불상 조사사업의 결과가 담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조각 조사보고 2〉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금동아미타삼존불상과 금동관음보살좌상 1구 등 4점의 사진, 3D 스캔 사진과 실측도면, 복장물의 기초 자료, 성분 분석 결과 등이 수록됐다.

보고서에 수록된 금동아미타불좌상, 금동관음보살입상, 금동대세지보살입상은 서로 양식적으로 유사하고 인상이 비슷해 그동안 일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세 점이 같은 공방에서 일괄로 조성된 삼존상임이 확인됐다.

보살상의 복장물을 조사한 결과 삼존불의 제작과 복장물 납입은 1333년에 이루어졌으며, 불상 제작의 주요 발원자는 장현(張鉉)과 처 선씨(宣氏)이고 복장물 납입에는 김진(金軫), 이겸(李謙) 등 고위 관료를 포함한 수백 명이었다. 노덕현 기자



謹賀新年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현지사

초 대 교조 광명 만덕 큰스님
제2대 교조 자재 만현 큰스님

장로원 의장 광영 교정원장 성광
감찰원장 일도 포교원장 행원
교육원장 대원 불교대학장 일도

춘천 총본산 주지 정대 제주제2본산 주지 성수
부산분원 주지 보문 대전분원 주지 범행
고성분원 주지 일행 서울분원 주지 지원
대구분원 주지 일성 일본분원 주지 성도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g@hanmail.net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 ☎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 033-681-5515
• 서울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 ☎ 02-453-5953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 일본분원 일본국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츠죠 3-3-10 ☎ 81-827-31-166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 ☎ 042-525-5325